



‘변화의 시작’을 제안한 학장으로서
 계속 방향타를 잡고 **‘변화의 가속’** 페달을 밟기 위해
 다시 한번 학장 후보로 나섰습니다.
 왜 시작했는지,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.

2년 전 봄, 학장 선거에 나서면서 **‘변화의 시작’**을 약속드렸습니다. 그리고 학장 취임과 동시에 저는 330여 명의 교수님들과 함께 실행에 나섰습니다. 그런데 그동안 세계가, 한국이 말 그대로 급변했습니다. 공학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 우리 이웃들이 동네 카페에서, 사우나에서 반도체, AI, 에너지, 전력망을 화제로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

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. 제 임기 중 이런 흐름이 더 강해졌으니까요. 저는 서울공대의 이름으로, 서울공대의 힘으로, 그 흐름을 강화하고 또 올라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. 이제는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“우리는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”

이 변화의 시작이 가능했던 가장 큰 원천은 무엇보다 **서울공대 막강 교수진**이었습니다. 신규 프로그램과 조직 기획, 대형 연구과제 준비, 산학 협력 확대, 정부 위원회 참여, 언론 기고에 이르기까지 교수님들께서는 언제나 흔쾌히 응답해 주셨습니다. 그 열정과 사명감이 서울공대 변화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.

두 번째 원천은 **7만여 서울공대 동문**이었습니다. 모교에 대한 관심을 요청드렸을 때 한 분 한 분 응답이 이어졌고, 제 스마트폰에는 천명 가까운 주요 동문의 리스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이분들이 저의 빅데이터입니다. 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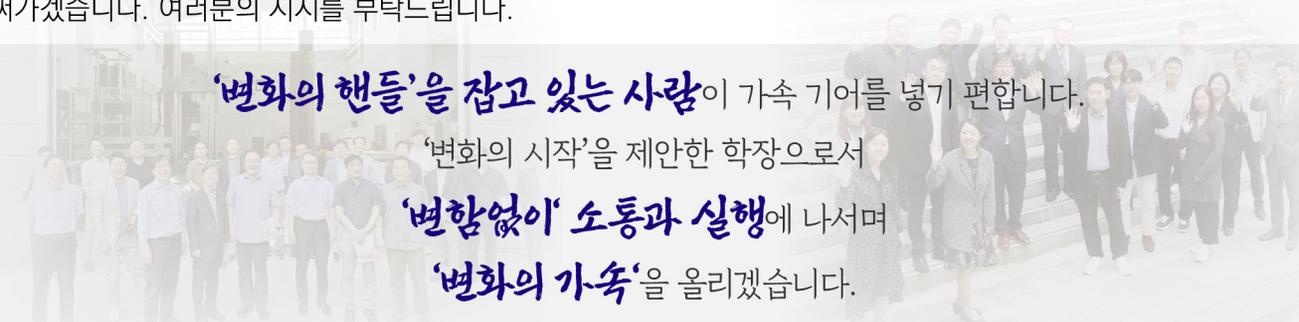
세 번째 원천은 **정부와 지자체, 기업, 그리고 언론**이었습니다. 정부, 기업, 국회, 도지사실, 시장실을 문턱이 닳게 돌아다녔습니다. 신문에 글을 쓰고 인터뷰에 응하고 방송에 출연했습니다. KBS 특별기획 <공대에 미친 중국, 의대에 미친 한국>을 자문하고 직접 출연했습니다. 아시다시피 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.

서울대학 내 살림살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단과대학으로는 드물게 2년 연속 신축 건물 예산(총 예산 **국고 700억원, 민간 300억원**)이 본부를 통과 중이며, 교원 확보와 강의 책임시수 완화에 실질적 소득이 있었습니다. 특히 2025년에는 전국 모든 공과대학 학장을 대상으로 ‘최고학장상’을 수여하였고, **서울대학교 ‘최우수 행정기관’**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이제 제게는 누구보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,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신뢰, 그리고 언론과 대중의 인지도가 쌓여 있습니다. 서울공대에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이 **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것**입니다.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용기였습니다. 변화의 속도를 ‘높이는 것’은 ‘우리의 책임’입니다. 그 책임 위에 서울공대 혁신의 역사를 함께, 그리고 거침없이 써가겠습니다.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.

‘변화의 핸들’을 잡고 있는 사람이 가속 기어를 넣기 편합니다.

‘변화의 시작’을 제안한 학장으로서
‘변함없이 소통과 실행’에 나서며
‘변화의 가속’을 올리겠습니다.



1-1 세상을 바꾸는 혁신인재 육성사업 정착

현실진단: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로 판을 흔드는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자 처음 시도하고 있는 EXCEL 혁신인재 육성사업이 2026년 40명의 학부생을 선발하였습니다.

추진계획: 올해 첫 시행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을 기하고, 본 사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공고되는 교육부 신규사업(연 85억원 규모)에도 선정되어 예산 부담도 해소하겠습니다.

1-2 AI 시대 공학교육 정책 선도

현실진단: AI로 공학교육 또한 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지만, 우리 내부의 논의는 그동안 없었습니다.

추진계획: 32대 학장단에서 시작한 학내 정책 연구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글로벌 선도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AI와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공학교육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.

1-3 실질 강의시수 연 9학점 실현

현실진단: 지난 1년 공과대학이 주도적으로 본부에 요청하여 실질 강의시수 경감에 부분적 진척이 있었지만, 아직 완전한 연 9학점 실현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추진계획: 강의시수 결정을 단과대학에 위임하는 방안 등 공과대학이 제출한 개선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부와 더욱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.

2-1 학생 창업 실적 배가 달성

현실진단: 이공계 위기의 돌파구는 스타 창업가 탄생이지만, 국내 창업의 요람은 KAIST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.

추진계획: 공학컨설팅센터에서 창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의적절하게 홍보하겠습니다. 2026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‘창업가형 혁신인재 교과목’의 내실을 기하고 국내외 동문과 창업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원을 이끌어겠습니다.

2-2 ‘정부가 주목하는 서울공대’ 지속 추진

현실진단: 합리적인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대한 서울공대의 기여는 교수 개인 차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.

추진계획: 32대 학장단에서 시작한 이슈&보이스 포럼을 이어나가고, 국가연구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할 연구전략위원회를 운영하며, 세종시에 과학기술 정책 최고위과정 신설을 타진하겠습니다.

2-3 연 500억 관산학 대형연구사업 기획

현실진단: 2025년 국방공학센터 및 산업ai센터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우주융합기술관 설계가 시작되어 정부 및 기업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

추진계획: 새로운 조직과 시도가 성취로 이어지도록 단과대학 차원의 관산학 사업(국방공학, 산업AX 등)을 매년 500억원 이상 기획하겠습니다.

3-1 연 365억원 발전기금 및 선제적 홍보 지속

현실진단: 32대 학장단에서 2배의 발전기금과 10배의 홍보를 제안하여 70% 정도의 달성도를 이루고 있습니다.

추진계획: 신규 발전기금 사업과 선제적 홍보를 통해 이 계획이 초과 달성되고 33대 학장단에서도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3-2 서울공대 80주년 공유(工遺, Legacy of Innovation) 사업의 성공적 완료

현실진단: 작년부터 다양한 서울공대 80주년 사업이 ‘80년의 도전, 혁신의 미래’라는 슬로건 아래 준비되어 왔습니다.

추진계획: 역사관 개관, 기념 포럼 및 전시회 개최, 기념 책자 발간, ‘관악이 배출한 혁신동문’ 초청 특강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, 서울공대 혁신의 역사를 사회와 공유(共有)하겠습니다.

3-3 2배의 동문이 참여하는 모교로 전환

현실진단: 2025년 입학 30, 40, 50주년 기념행사 개최, 모교 방문의 날 참여 동문가족 400명 돌파, 서울공대 비즈니스포럼 출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.

추진계획: 동문 주소록의 실질 연락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,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'서울공대 비즈니스포럼: Under 45' 등을 시작하겠습니다.

4-1 구태의연 & 불합리 제도 매년 20% 개선

현실진단: RPA(Robot Process Automation)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등이 인정되어 2025년 최고 단과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. 하지만 구태의연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.

추진계획: open.eng@snu.ac.kr, 민원 챗봇 'EngiOne' 등을 통해 개혁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, 공대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업무부터 실행에 옮기면서 본부에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.

4-2 교류와 복지가 넘치는 일터 이어가기

현실진단: 32대 학장단에서 3배의 복지와 5배의 교류를 약속드리면서,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.

추진계획: 32대 학장단에서 시작한 건강검진 추가 지원, 공항/기차역 콜벤 픽업 서비스, 프로야구 관람 등의 복지 프로그램을 이어가고, 열린토론회, 연구소 초청 간담회, 소모임 지원 등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.

4-3 아름다운 캠퍼스로의 노력 지속

현실진단: 냄새없는 화장실, 택배 정리, 보행로 환경 개선 등 최근 아름다운 공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,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

추진계획: 주차난 해소에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, 숲길 조성 및 예술 행사 기획 등을 통해 편리하고 예술이 넘치는 아름다운 서울공대 캠퍼스로 나아가겠습니다.

5-1 초우수 해외 인재 유치 지속

현실진단: 2025년 베트남과 중국 연계를 중심으로한 초우수 해외 인재 유치 기금이 연 10억원 이상 확보되었습니다.

추진계획: 이 기금으로 매년 20명의 초우수 학부생 인재 유치를 실현하겠습니다.

5-2 초우수 해외 대학원생 및 지도 교수 지원 추진

현실진단: 초우수 해외 학부생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, 대학원생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에게는 혜택이 미흡했습니다.

추진계획: 초우수 해외 대학원생 및 복수학위 대학원생들에게는 학생 밀착 케어 서비스(비자/주거/은행/병원 안내 등)를 제공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에게는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서울공대의 국제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.

5-3 연구년 해외 파견 지원 사업 마련

현실진단: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 물가 상승과 환율의 영향으로 연구년 해외 파견이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

추진계획: 외부 재단 등과 함께 연구년 해외 파견 지원(학기당 2,500만원)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여, 해외 우수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제공동과제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가겠습니다.

32대 학장단 실적

⊗ 교원

- 실질 강의시수 9학점 (마일리지 적용, 계절학기 인정 등) 부분 실현
- (조교수 3년차) 연구기반다짐, (정년 1년전 정교수) 연구매듭, 지속도전연구(7전8기/독자지속/변혁기획) 연구사업 신설
- 건강검진 지원 확대, 공항/기차역 콜벤 픽업 서비스 등 신규 복지 서비스 등 10 여개 신규 도입, 교수 소모임 매년 10여개 활동 지원

⊗ 교육

- ‘창업가형 혁신인재’ 교과목 2026년 1학기 개설
- HST(Health Science Technology) 연합전공 의대와 공동 추진 (2027년 개설 예정)
- AI 기반 학습시스템 클라썸 및 폴리캠퍼스 도입
- 공대 공통교과목 ‘(가칭)인공지능 개론’ 교안 개발 중
- 공학전문대학원 학생설계트랙 신설

⊗ 학생

- 공학인재역량(공인)센터 개소
- 새내기공학캠프 신설
- 박사졸업생 대상 진대제상/관악차세대공학상 신설
- 서울공대 혁신인재 쉐어하우스 마련
- 도전혁신(CGЕ) 특강, 음악이 흐르는 공휴(工休) 콘서트 론칭

⊗ 연구 및 관산학 협력

- 국방공학센터, 산업AI센터 신설
- 연구자매칭 Xpert System 오픈
- 양재동 서울시 시허브(연간 80억원) 및 산업AX혁신센터 위탁 운영
- 서울시 라이즈 사업(5년 45억원) 수주 지원
- 산업통상부 장관 등 서울대 총장 MOU 3건 기획, 학장 MOU 20건

⊗ 시설 및 기획

- 2026년 우주융합기술관(민간 100억, 국고 400억원) 건립 계획 확정
- 2027년 (가칭)로봇기술관(민간 200억, 국고 300억원) 건립 계획 본부 1차심의 통과
- 관악이 배출한 혁신동문 50인, 서울공대 역사관 등 80주년 사업 추진

⊗ 발전기금

- 학장 재임 기간 중 발전기금 220억원 유치
- OO기업과 300억원 (가칭)첨단국방공학센터 건립 추진 중
- 신규 프로그램 PRYDE(Prestigious Relaying for Your Departmental Excellence) 시작, 2026년 3월 6일 현재 115건, 40억원 모금

⊗ 대외 홍보 및 행정

- 2025년 서울공대 언론 기사 400 여건 달성
- 언론 인터뷰 10건 포함 임기 중 학장의 언론 노출 100 여건
- KBS 특별기획 <공대에 미친 중국, 의대에 미친 한국> 출연
- 이슈 & 보이스 포럼 4회 개최
- RPA(Robot Process Automation), EngiOne 민원 챗봇 개발 후 운영 중
- 2025년 서울대학교 최우수 행정기관 선정
- 전국 공과대학 학장을 대상으로 한국이공학진흥원이 선정하는 2025년 ‘최우수학장상’ 수여